

이역땅에 흩어진 재중동포들의 뜨거운 경모의 정 (1)

통일신보편집국은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중국 심양과 연길에서 진행된 재중동포들의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취재하였다.

연길땅에 울려 퍼진 위인칭송의 목소리들

중국의 연길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연길독란》이다.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자체의 힘으로 무장을 해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연길지대의 반일민민유격대원들이 만든 작란벽에 얼마나 많은 애인들이 녹아나고 났을 잃었던 지 채물들끼리 이 작란을 《연길독란》이라고 이름까지 지어 부르면서 공포에 떨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항일혁명투쟁업적이 력력히 깃들 어있는 이 력사의 땅에서 오늘날은 재중동포들이 빨치산의 아들인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한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는 흥분으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경축행사가 진행될 연길시의 아리랑극장으로 향하였다.

국장은 광명성절경축행사 준비로 흥성이었다. 광명성절경축 사진 및 도서전시회준비에 여념이 없는 김길선 재중조선인총련

합회 선전국 부원과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일군들의 모습이 눈에 띄우는가 하면 극장의 조명과 무대장치, 특음설비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느라 바빠 움직이는 차상보 부의장과 최수봉 부의장의 모습도 보였다.

그런가하면 무대우에서는 재중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의 광명성절경축공연을 위한 연습이 한창이었다.

우리는 광명성절경축행사준비에 온갖 지성을 다 바쳐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백두산절세위인에 대한 재중동포들의 경모의 정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를 느낄수 있었다.

12일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 가 아리랑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중앙보고대회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산하지구협회 대표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대표들, 연길시에 사는 동포 1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김광훈 심양주재 우

리 나라 총령사와 지연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외사관공실 부주임, 박서영처장, 리영학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출입경관리국 국장, 조영길 연길시인민정부 부시장 등 중국의 여러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중앙보고대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중앙보고대회에서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조국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한다고 하면서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한결같은 애국충정의 마음을 담아 필승의 선군보건을 안겨주시고 무한한 행복과 희망찬 미래를 담보하는 혁명의 만년초석을 쌓으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정일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오며 위대한 장군님의 영성을 삼가 기원하였다.

그는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역땅에 살고있는 동포들을 한시도 잊지않으시고 따스아 애국애족의 한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고 하면서 온 민족을 한품에 안아 뜨거운 사랑을 부여하신 장군님의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겨레모두의 심장속에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으며 펼쳐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불멸의 업적은 선군으로 강위력한 주체조선의 무궁한 력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이 맞이한 대행운이고 최상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내 조국의 역센 존엄과 기상을 하늘끝에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달게 하여주시고 천만군민을 비약의 폭풍으로 이끌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개화기를 펼쳐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정치, 인민사랑의 정치는 온 민족과 세계를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강성부흥할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게 하고있다

그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오로지 백두의 위대한 혈통이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우러러 따르는 주체의 해

외동포애국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감에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집필을 남기신 20돛이 되는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의 앞장에 설 결의를 표명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중앙보고대회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중앙보고대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조선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

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였다.

이어 재중조선인예술인들의 광명성절경축공연을 진행되었다.

출연자들은 《2월의 원무곡》, 《축배를 들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백두와 한나는 내조국》, 《애곡》, 《불타는 소원》,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등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노래들을 잘 불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중앙보고대회에 앞서 아리랑극장의 중앙홀에서는 《광명성절경축 사진 및 도서전

시회》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과 도서들을 주의깊게 돌아보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가슴즈금게 새기었다.

참으로 이번 광명성절경축행사를 통하여 재중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령도따라 참다운 애국의 한길로 변함없이 걸어갈 굳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김화명



↑ 재중조선인예술인들의 광명성절경축공연이 진행되었다.
← 《광명성절경축 사진 및 도서전시회》 진행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우리 통일신보사 취재단이 김경수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중국의 심양시에 자리잡고있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에 도착한것은 지난 10일 아침이었다.

광명성절경축행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고있던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반갑게 맞아주며 이제 진행하게 될 회의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주석단 정면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고 아래에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보고회》라고 써여진 글이 나 붙어있는 회의장은 각지에서 모여온 동포들로 흥성이었다.

최수봉 부의장이 조국에서 기자들이 왔다고 소개하자 많은 동포들이 저저마다 우리의 손목을 부여잡고 조국의 동포들과 광명성절경축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고,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존의 모습으로 계시는 백두산태양궁전을 찾아뵙는 심정으로 여기에 왔다고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는 속에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보고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따스한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며 참다운 애국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이 못건디게 그

리위서인가 행사는 끝났지만 많은 동포들이 선뜻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우리와 만난 황영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보고에서도 언명하였지만 우리 장군님은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모든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겸비하신 천출물장하시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셨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그 업적이 하도 위대하고 기에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재중동포들도 장군님 탄생하신 2월의 명절을 이렇듯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는것입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중국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시는 그때면 매일 매 시각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수첩에 하나하나 기록해가며 마음은 장군님길로 달려있었다는 김길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 부원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격동적이었던가.

《우리 장군님을 중국의 령도집단이 모두 떨쳐나 최대의 국민으로 맞이하는 광경을 보면서 장군님이시야말로 온 세계가 격찬하고 흠모하여 마지막을 결출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저는 깨우쳐 절감하였습니다. 천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시고 사는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났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높이 모시며 그래서 우리 동포들은 또한 분의 절세위인인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경

민족최대의 명절인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진귀한 공예품을 마련하여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삼가 선물로 올렸습니다.

우리와 만난 한길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장은 선물을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최근에 조국에서 일어나고있는 눈부신 기적과 변혁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이지 놀랐습니다. 남들같으면 몇십년도 더 걸렸을 거창한 창조물들을 단 몇달사이 에 척척 일떠세우는 조국의 이 거대한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온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비범하고도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지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우리 민족은 위인복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은 또한 분의 절세위인인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경

모의 마음을 담아 《모란사과꽃병》을 정히 마련하여 원수님께 삼가 선물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모란사과꽃병》은 중국의 하문 우필드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중국 하문 우필드회사는 국가문화산업시법기이고 중국국민례품 및 중국의 국가령도자들과 외국 인사들의 선물들을 특별제작하는 회사이다. 우필드회사는 근 300년의 력사를 가진 전통적인 공예품제조법으로 공예품

들을 생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공예품을 사과처럼 둥글게 형성한것은 평화를, 꽃병에 새긴 모란꽃은 부귀영

화를 상징한것으로서 선물 《모란사과꽃병》은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려 불멸불후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보고회장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재중총련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것입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의 정에 북받쳐있는 동포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안은 우리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동포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눈 후 다음취재를 위해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그날의 영광을 새겨안고

상 마음속에 짝 차있기에 80리평의 몸이지만 저 멀리 대련에서 이렇게 경축행사장으로 달려왔다.

내 지금껏 살면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험한 일지만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과 같이 인민을 그토록 사랑하신분은 이 세상에 없다. 정말이지 하늘이 낸 위인중의 위인들이시다.

그런데 내 인생말년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인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또 한분

의 출중하신 위인을 직접 뵈을을 어찌 알았겠는가.

지난해 전승 60돛을 맞으며 로병대표단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던 나는 우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해 촬영장으로 나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보면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주시는것만 같아 너무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왔다.

그날 나는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젊으신 장군이 계시여 앞으로 우리 조국은 약동하는 기상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힘있게 내달리겠구나 하는 신심을 더 굳게 가지게 되었다.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었던 그날의 크나큰 영광과 감격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안고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위업에 적은 힘이나마 바쳐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련시 지부장 황정숙